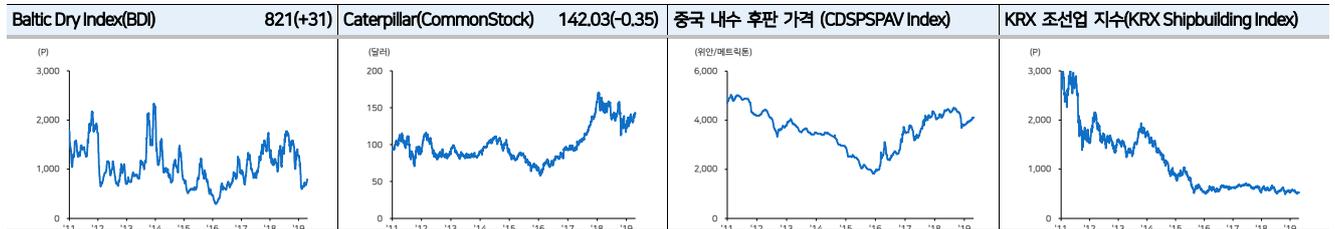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988.2	16.4	127,000	5.8	0.8	-7.6	-1.2	88.5	42.4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618.9	22.0	345,000	1.3	1.5	-4.8	-0.3	4.6	3.9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490.6	6.0	24,100	0.6	-6.6	-3.8	8.6	2.3	2.0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941.7	10.5	47,800	-1.1	-1.6	-9.6	11.9	3.0	2.2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247.9	19.8	8,330	0.1	-4.7	5.7	12.4	52.5	26.1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173.3	11.6	29,600	2.6	5.9	-13.2	-13.3	10.3	16.4	0.9	0.8	9.0	4.6
현대미포조선	2,328.6	13.4	58,300	2.6	2.1	-8.9	-2.8	12.6	9.1	0.4	0.4	3.6	4.8
한진중공업	211.0	3.6	1,990	67.2	67.2	17.8	20.2	40.0	10.0	0.3	0.3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425.2	20.4	89,300	1.2	10.2	-20.6	-16.5	15.8	15.3	2.2	1.9	14.6	13.3
두산밥캣	3,197.9	25.2	31,900	0.9	4.2	-5.5	1.3	11.7	11.0	0.9	0.9	7.4	7.6
현대로템	1,938.0	4.2	22,800	0.2	4.3	-18.1	-18.1	29.4	20.0	1.3	1.2	4.5	6.3
하이록코리아	277.0	47.6	20,350	2.3	6.8	4.9	23.7	9.2	8.4	0.8	0.7	8.8	9.0
성광벤드	331.8	16.5	11,600	2.2	4.5	3.6	1.8	1,025.4	41.6	0.7	0.7	0.1	1.8
태광	314.0	11.8	11,850	3.0	4.9	-2.9	1.3	70.8	34.6	0.7	0.7	1.0	2.1
두산중공업	963.5	9.8	7,060	1.1	4.0	-25.6	-15.9	-21.2	9.9	0.3	0.4	-0.1	4.0
두산인프라코어	1,552.9	17.4	7,460	1.9	-1.6	-13.0	-1.7	5.1	5.3	0.8	0.7	17.7	13.9
HSD엔진	137.2	3.2	4,165	0.0	-16.3	-30.1	-21.1	-10.9	N/A	0.6	N/A	-4.7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460.4	16.1	35,500	0.3	-3.3	3.6	11.3	51.8	22.2	3.1	2.9	6.1	14.2
한화테크윈	1,610.6	14.4	30,950	0.0	-8.8	-0.3	-4.8	128.2	24.8	0.7	0.7	0.6	2.8
LIG넥스원	841.5	7.8	38,250	-0.3	-1.0	10.2	3.5	88.1	36.8	1.7	1.3	2.4	3.6
태웅	220.1	4.0	11,000	4.8	7.8	0.5	4.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45.3	6.3	9,090	2.8	4.6	19.3	17.7	-19.2	16.4	3.3	2.8	-16.2	18.5
한국카본	366.6	14.9	8,340	4.4	-1.3	18.0	18.5	129.9	22.0	1.2	1.2	0.9	5.4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31p, 중고선가 지수 96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31p, 중고선가 지수는 96p로 전주와 동일함. 현대삼호중공업은 일본선사 NYK에서 17.4만CBM급 LNG선 2척을 수주했고, 인도는 2022년 예정됨. 러시아 Sovcomflot은 자국 Zvezda 조선소에 17.3만CBM급 LNG선 1척을 발주했고, 인도는 2023년 초로 예정됨. (Clarksons)

Qatar Petroleum launches tender for LNG carrier mega-order

카타르는 LNG 생산량 증가에 맞춰 우선 LNG선 60척을 발주하고, 향후 10년 내에 총 100척 이상을 발주할 계획을 밝힘. 주된 목적은 카타르 North Field Expansion(NFE) 프로젝트와 Golden Pass LNG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알려짐. LNG선 발주에는 한·중·일 조선사가 거론되며, 우선 발주하는 60척은 17만CBM급을 바탕으로 발주할 예정임. (TradeWinds)

현대중, 해양 부문 유류인력 300명 전환배치 검토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생산직 유류인력 전환배치 운영계획'에 따르면 300명의 유류인력을 회사 내 부서와 계열사로 전환배치 하는 작업을 검토 중으로 알려짐. 300명 중 미포조선 50명, 삼호중공업 100명이 될 예정임. 현대중공업은 전환 배치와 더불어 조선 부문의 일감을 해양플랜트 부문에 배정해 점진적으로 유류인력 문제를 해결할 방침임. (뉴스1)

2025년 신조선 중 60%가 LNG추진선

코트라와 KDB산업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세계에서 발주되는 선박 중 60.3%가 LNG추진선이 될 전망이다. 주된 이유는 IMO 규제 시행으로 항 함유량을 절감해야 하기 때문임. LNG는 오염배출이 훨씬 적으며 석유보다 저렴, 연비도 대등한 수준임. 또 IMO 규제로 친환경 선박 기자재 시장(스크러버 등)은 향후 5년간 2,5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선박뉴스)

삼성중공업, 1조1천억원 규모 FPSO 1기 건조계약 체결

삼성중공업은 인도 릴라이언스 프로젝트에서 FPSO 수주에 성공했다고 알려짐. 아시아지역 선주로부터 1조 1,040억원 규모 FPSO 1기를 수주했다고 공시했고, 2022년 3월까지 출항할 예정임. 이번 계약은 발주처의 파트너사와 정부 승인을 조건으로 한 계약임. 삼성중공업은 호주 바로사 FPSO, 나이지리아 봉가사우스웨스트 FPSO에서 추가 수주가 기대됨. (연합뉴스)

빛내서 산 우리사주 '경중'...삼성중 직원들 웃었다

삼성중공업이 2018년 5월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 2.4억주 중 20%인 4,800만주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 오는 5월 7일에 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임.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신주 발행가는 주당 5,870원으로 총 2,819억원 규모임. 삼성중공업 증가 8,330원을 감안하면 우리사주 수익률은 40%를 웃돌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Keppel aims to hire more staff for offshore yards

싱가폴 Keppel Corp는 2019년 해양플랜트 사업부에서 약 1,800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임. 현재 임직원인 10,843명 수준이나, 해양플랜트 시장 회복과 신규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이번 채용은 2015년 초부터 시작된 Downsizing 이후로 처음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짐. (TradeWinds)

KCC, 美 모멘티브 인수 위해 범현대家 주식 장내매도 나서

KCC는 M&A 자금 조달을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KCC는 미국 모멘티브 지분 45%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 5,866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신용평가사를 중심으로 이번 인수가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자 보유지분 매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KCC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은 2018년 말 기준 2조 6,194억원에 달함. (한국경제)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검토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4월 24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4월 24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4월 24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실 때는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